

•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

『광해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라는 두 권의 저서에서 조선 중기 한중관계의 특성을 날카롭게 파헤친 저자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친 조선·중국·일본 세 나라의 상호관련성을 주목하여 분석한 책이다. 조선시대의 외교관계를 조중관계, 조일관계라는 양국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조·중·일 삼국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펼쳐진 외교관계의 실상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한국근현대사의 미국인들

- 제국주의 앞잡이인가? 한국의 친구인가?



안종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동아시아와 미국관계로 석사학위,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한미관계, 1931~1948」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 군정』, 『세계 속의 한국사』(공저),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공저) 등이 있다. 현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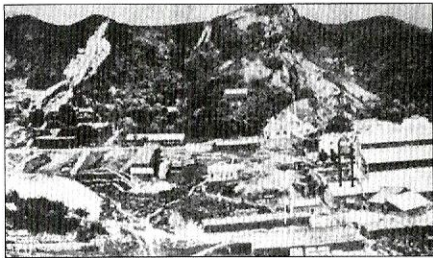
이러한 미국인들의 활동은 해방 후 남한 사회의 한 단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한국인들이 냉전 구도 속에서 이들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에 유학하거나 방문했고 후일 한국의 엘리트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한국근현대사의 미국인들

- 제국주의 앞잡이인가? 한국의 친구인가?

구한말~식민지시기 한반도에서의 미국인들의 존재

한국에 서구인들이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882년 한국과 미국이 근대적인 조약을 맺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말 하멜과 벨테브레 등 난파한 네델란드계 상인이라든가 19세기 초부터 조선 해안에 나타난 영국, 미국 배 등에 승선한 서구인들을 제외하고는 한미 조약 이전에는 서구인들은 장기간 조선에 거주할 수 없었다. 공식적으로 국왕을 만난 사람으로 1883년 내한한 초대 주한 미공사 푸트^{L. Foote}가 처음일 것이다. 그 후 잘 알려졌듯이 1884년 의사인 알렌^{Horace N. Allen}, 1885년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원두우),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등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내한하게 되었다. 그 후 조선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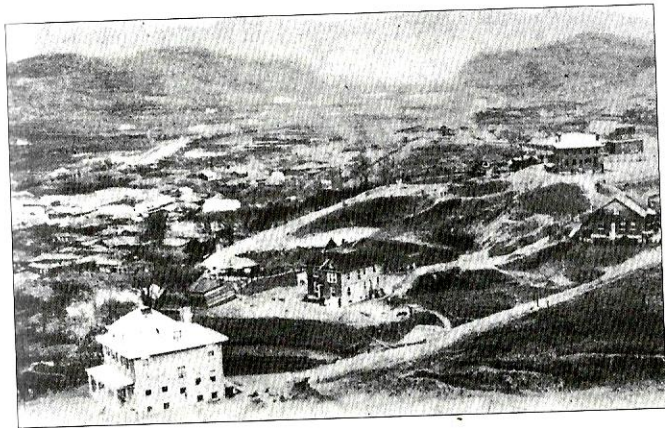


[사진 1] 운산금광의 전경¹⁾

는 대한제국(1897)으로 이름을 바꾸어가면서 개혁정책을 펼쳤지만 서구식 군대와 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침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영미 측의 지원과 목인을 얻어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1910~1945)에서의 영미인들의 사업이나 선교활동을 지원했다. 식민지화 이전인 1896년, 조선정부는 금광채굴권을 미국인들에게 양여했는데 당시 조선정부는 약 10% 정도의 이익금을 매년 배당받는 것으로 했다. 금광운영은 식민지에서도 지속되었다. 알렌 공사의 중재로 동양광업주식회사가 경영하게 된 운산금광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운산금광은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최대 금광이었다고 평가된다. 1939년 전시체제로 가던 일제가 이 금광을 직접 사들임으로써 미국인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1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539쪽.



[사진 2] 충청도 공주의 감리교 선교지부

의 조선 내 사업경영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 외에는 석유의 공급을 미국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 Company)이 맡았었다. 일제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은 다른 서구 식민지와 다른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식민지와 달리 유일한 비백인인 일본인들이 피식민자들을 지배하는 곳으로, 식민지 이전부터 존재해온 상인들과 미국 선교사들이 식민지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대체로 높은 언덕에 교회, 학교, 병원 등의 시설을 두고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조선인들과 떨어져서 활동을 했다((사진 2) 참조). 선교사들은 일상생활에

서 한국인들과 그다지 교류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독자적인 주거지를 형성한 것은 안전이나 건강 이외에도 “언덕위의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기독교적 문명화의 상징을 보여주려고 했다.²⁾ 이런 점에서 평양 지역의 선교타운은 가장 대표적이었다. 평양을 방문한 선교사 조지 풀튼 George Fulton은 이곳을 “제국 속의 제국”이라고 명명했다. 이는 일본 식민지 속에 내재한 영미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평양의 선교지부는 120에이커(약 485,635m²)에 달했는데 이는 오늘날 웬만한 대학캠퍼스보다 넓은 지역에 해당된다. 이 지역에 학교, 교회, 병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이 지역을 당시 사람들은 신양리 新陽里라고 불렀다. 선교사들은 당시 외교관이나 사업가들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았지만 조사(助事)인 한국인이 받는 돈이 매달 4~5달러인데 비해 80달러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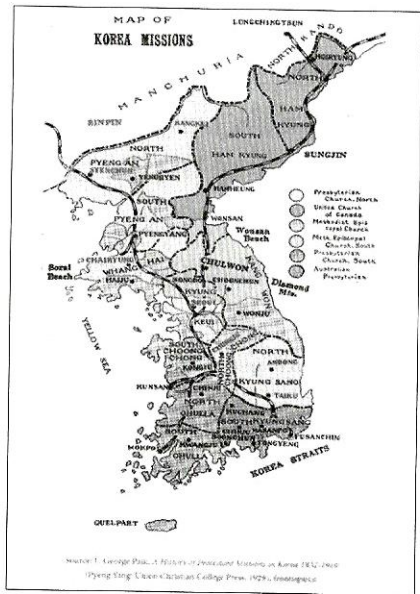
식민지시기에는 외교관과 사업가들이 소수였고 그 대부분은 선교사들이었다. 이들 영미인들은 특히 교육과 의료기관에서 한국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 당시 일제는

2)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 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48~73쪽.

3) 위의 책, 81~87쪽.

세정투자를 통해 학교와 의료사업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전체 중등교육기관(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 중 30% 이상을 미선계가 담당했다. 각 대도시 급에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거의 대부분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당연히 이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서구 식민지와 달리 때로는 일제에 대항적인 민족주의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각 교파별로 1892년경부터 1907년경까지 한반도와 간도 등에 걸쳐서 선교 구역을 정했다. 이를 두고 교계예양(敎界禮讓)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교사들의 연합회인 선교부공의회(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후일 한국 장로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 북장로교(1885년에 한국선교 시작) 측이 평안도, 경상북도 등을 포괄하는 지역을 차지했고 미 북감리교(1885)가 경기·충청·평안도 일부, 강원도 남부 등을 맡았다. 그리고 미 남감리교(1896)는 경기북부·강원북부 등에서 활동했고 호남지역은 미 남장로교(1892), 함경도와 간도는 캐나다 장로교(1898), 경남지역은 호주 장로교(1891) 등으로 나뉘어졌다. 인구 5천 명 이상 지역은 여러 교파에서 접근할 수 있었다. 오늘날 전국 각 지역의 미



[도판 1] 교계예양

선스쿨들의 기원은 대개 구한말 내지 일제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계예양은 1930년대에 와서 사실상 붕괴되었다((도판 1) 참조).⁴⁾

선교사들은 매년 초여름 무렵에 전국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 의료, 정부와의 관계 등을 조율하는 정책을 세웠고 뉴욕에는 장로교와 감리교의 각 교파별 해외선교

4) 교계예양 문제는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1, 기독교문사, 1989, 213-218쪽.

부가 있었다. 그러나 해외선교부와 조선 내의 선교부와의 관계는 항상 매끄러운 것이 아니었다. 특히 일제가 1930년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는 조선선교부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해외선교부는 현장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지의 선교사들을 지도하는데 한계를 노출했다.

미션스쿨과 총독부의 관계

1910년대 선교사들의 일제 측과 갈등은 3·1운동을 계기로 해소하게 되었다. 이는 총독부가 '문화통치'라는 유희정책 하에서 미국 의사자격증을 조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가 재단법인화를 통한 선교사들의 교회와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주었던 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는 조선인들의 교육에 매우 중요했다. 선교사들은 초등교육을 한국인 신자들에게 맡겼으므로 이들이 운영한 학교들은 중등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몇 개의 대학기관도 함께 운영했다. 이들 미션스쿨 중 대부분은 보수적인 장로교 선교사들이 운영했다.

일제의 교육체제하에서 '각종학교'로 관리되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8개의 중등학교는 1920년대 중반까지도 졸업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일제는 교육에서 공립은 말할 것도 없이 사립학교도 국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하며, 종교교육을 정규과정 밖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1915년의 사립학교규칙). 이에 반해 선교사들은 미국의 기독교계 학교가 당시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입장이었으므로 종교교육을 정규과정 내에 포함하고자 했다.

문화통치하의 총독부는 미션스쿨을 정규과정에 속하도록 하여 종교교육을 시키면서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다. 그 결과 재정과 교사 채용 등에서 당국이 정한 수준에 미치는 학교를 '지정학교'로 인정해주는 안을 1920년대 초 만들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일정 수준을 갖춘 대부분의 학교들은 1930년대 중반까지 '지정학교'로 인가받는데 성공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신학교(1923. 5)와 정신여학교(1935. 5), 평양의 숭실학교(1928. 5)와 숭의여학교(1931. 12), 선천의 신성학교(1931. 3)와 보성여학교(1935. 5), 대구의 계성학교(1933. 4)와 신명여학교(준비중)를 들 수 있다.⁵⁾ 결국 1930년대 중반이 되면 대부분의 미션스쿨들도 일제의 교육체제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션스쿨 운영자들의 면모를 보면 감리교는 신홍우(배세고등보통학교), 윤치호(개성고등보통학교) 등 점차 한국인들이 주체가 되었는데 장로교는 북장로교, 남장로교한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다. 장로교 측에서 1930년대 중반 이전 한국인이 최초로 학교의 운영자가 된 것은 신성학교 교장으로 장리욱이 1928년에 부임한 사례가 유일하다. 이러한 사실은 신사참배에 대해 선교사들이 교육철수를 단행하면서 교육기관을 두고 총독부, 선교사,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다.

일제의 전시동원과 신사참배 문제

일제의 식민지배 말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군국주의의 지배 도구가 되었던 신사참배 문제였다. 일제는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이후(만주사변) 서서히 군국주의

5)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 군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59쪽.

화되어갔다. 일본 내에서도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과연 천황이 일본 제국헌법의 위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헌법상 한 기관에 불과한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천황기관제설논쟁’). 그 이후 1936년 2·26쿠데타가 발발해서 일본 내 의회정치는 종말에 이르렀고 1937년 7월 7일에는 일본이 중국본토를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38년부터 조선에서도 전시동원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물자통제 등도 이루어졌다.⁶⁾

신사참배는 이러한 배경에서 1935년 가을부터 본격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동년 9월 22일자로 각 도지사에게 모든 학생들의 신사참배를 지시했다. 1935년 11월부터 1938년 가을 무렵까지 신사참배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당국, 선교사, 한국인들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과 일부 한국인 신자들이 신사참배의 종교성을 문제삼아 참배에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제 당국은 학교장의 파면으로 맞섰다. 결국 선교사들이 불 때는 학교의 존속이 어렵게 되었다. 선교사

6) 전시체제기의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개정판), 박영사, 1998, 480~483, 519~529쪽 등 참조.

들 중 일부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신사참배의 애국행위에 대한 일제 당국의 설명을 받아들였으므로 상황은 매우 복잡했다. 결과적으로 당시 감리교 측은 신사참배가 애국행위임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기에 운영 학교들이 대부분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들도 이미 한국인들이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큰 문제가 안 되었다. 게다가 당시 감리교 학교들은 대부분이 서울, 경기권에 있었기에 당국과 비교적 긴밀히 협조했다.

이에 반해 장로교 측은 남북장로교가 운영하는 학교별로 약간 상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남장로교 측이 운영한 호남지역 학교들은 신사참배가 강요되자 1937년 가을 대부분이 문을 닫았다. 즉 남장로교 측은 한국인들에게 학교운영권을 넘기지 않고, 학교재산을 남장로교 선교부가 소유한 상태로 문을 닫았던 것이다. 물론 일제 당국은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켰다. 이에 반해 북장로교 측은 서울지역의 언더우드 Horace H. Underwood(원한경)와 쿤스 Edwin W. Koons 등이 주도해서 학교들을 북장로교 조선 선교부가 운영할 수 없다면 한국인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은 한국인들에게라도 넘겨야지 기독교적 영향력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평

양의 모팻 등의 보수적인 선교사들은 학교를 남장로교의 예를 따라서 즉시 문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평양의 세 개의 학교(숭실·송의·숭실전문학교)는 문을 닫았는데 숭실학교는 평양 제 3중학교로 개교, 송의여학교 학생들은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로 흡수, 숭실전문학교는 광산학과 등이 중심이 된 대동전문학교로 재편되었다. 평양의 학교 인계 문제에는 조만식, 오윤선 등 평양 지역의 지도자들이 나선 것이 특징이었다. 평양의 학교들은 폐교의 과정을 밟았지만 조선 내 선교사들을 지휘·감독하는 뉴욕의 해외선교부는 다른 지역의 학교들은 한국인들 개인이나 기독교의 노회(會)(지역회의체)에 넘기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다른 지역들의 학교는 각 지역별로 구성된 인계위원회의 노력으로 한국인들의 손에 넘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 폐교를 강력히 요구해온 일부 선교사들은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를 탈퇴해 보다 '근본적인' 교파로 옮겨가서 활동하기도 했다.⁷⁾

이러한 논란의 뒤에는 일제 측의 일관된 정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일제는 우선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을 분

7) 안홍철, 앞의 책, 145~170쪽 참조.

리시킨 후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일정하게 해주면서 한국인들을 '친일화'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시체제가 심화되자 일제는 전시에 한국인들을 동원하기 위해 초등교육이라든가 공업이나 의학교육에 대한 시설을 일부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신사참배 논란을 벗어난 학교나 병원, 그리고 각종 기독교 관련 시설들은 1938년 가을 이후 서서히, 1940년부터 본격화된 일제의 '동아협동체론' 등 반서구 정책으로 말미암아 서구인들의 손을 떠나 한국인들에게 넘어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기독교계 출판물을 발행했던 기독교서회라든가 비교적 신사참배 문제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고등교육기관인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등도 선교사들에게서 윤치호, 오공선, 김활란 등 한국인 지도자들로 운영권이 넘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2차대전과 선교사들의 귀국과 활동

1939년 9월에 독일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에서 독일, 이탈리아 측과 영국, 프랑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1940년 9월에는 독일, 이탈리아와 일본이 삼국동맹, 즉 추축국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연합국측과 본격적인 대립관계에 들어갔다. 당시 미국이 영국을 지원하고 있었으므로 일본이 미국과 갈등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했다. 1940년 10월 주일 미대사 조셉 그루 Joseph C. Grew는 미 국무부 측에 동아시아에 있는 자국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권고하는 글을 보냈다. 이에 미 국무부는 동의하고 기선을 보내서 자국인을 11월 경 대부분 철수시켰다. 그러므로 조선 내 있었던 선교사들은 남아있던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돌았다.

결국 언더우드(원한경)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수십 명의 선교사들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1941년 12월 9일(한국시간) 이후 전쟁포로로 가택연금 내지 수용소에서 체류하다가 1942년 5월경 미·일 포로교환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언더우드 등은 식민지말 조선이 전시체제하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일본의 통제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설명하면서 한반도 내에서 일본에 대한 조직적인 봉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귀환 미국인들의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미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구상한 것을 뒤집지는 못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수많은 선교사들은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미 정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당시 충칭(重慶)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사실 임정(김구)과 그 미주 기관인 주미위원부(이승만)는 대일전에서 미국의 무기지원을 얻기 위한 것(무기대여법의 적용대상)과 동시에 해방 후 건립될 한국의 정부기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미 국무부에 대해 프랑스의 망명정부가 승인을 얻은 것과 같은 승인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임정이 한인들 사이에서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음과 함께 미주에서 이승만과 한길수 사이의 갈등등을 이유로 임정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은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영국이 자신의 식민지인 인도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 중국의 전후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커지리라는 것, 그리고 소련이 한인공산당을 중심으로 전후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는 것 등을 우려했기 때문에 임정 승인을 거부했던 것이다.⁸⁾

한국인들의 분과성과 국제정치상의 문제점 등을 문제삼으면서 임정 승인을 저지한 이면의 또 다른 이유로는

8)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479-511쪽.

신탁통치안을 전후 한국에 적용하려는 미 국무부의 복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탁통치안과 유사한 국제관리안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은 바로 1930년대 서울 미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윌리엄 랭던(William R. Langdon)이었는데 그는 1930년대 신사참배 문제 논란 시 서울의 언더우드 등 신사참배 찬성파의 의견을 지지했던 인물이다.⁹⁾

한편 임정 승인을 찬성한 인물들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헐버트(Homer B. Hulbert)와 에비슨(Oliver R. Avison) 등이고 선교사 2세로서 웨임스(Clarence N. Weems) 등을 들 수 있다. 헐버트와 에비슨은 구한말부터 대한제국 정부의 고종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인들의 독립 능력에 대해 꾸준한 신뢰를 보여온 인물이다. 에비슨은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역시 한국인들의 우수한 능력을 신뢰했다. 이들은 한국을 위하여 '한미협회'나 '기독교인친한회' 등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임정을 승인할 것을 미국 내에서 설득하고 다녔다(사진3 참조).¹⁰⁾ 웨임스는 평양숭실학교·숭실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한 맥큐(George S. McCune(운산은)의 아들인 맥큐(George M. McCune)과 친구로 들은 함께 미

9) 인종철, 앞의 책, 218~222쪽.

10) 고정휴, 앞의 책, 426~441쪽.



〈사진 3〉 이승만과 한미협회 활동(가장 왼쪽이 이승만,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헐버트)¹¹⁾

정보기관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미 중앙정보국인 CIA의 전신)에서 근무하면서 해외한인들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했다. 맥큐는 종전 전후로 미 국무부의 한국과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전후 대한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1945년 2월 소련의 알타에서 개최된 전후 질서를 위한 회담에서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것을 전후 한반도 정책의 골격으로 채택했다.

한편 상하이에서부터 임정의 김구와 그 일행들을 도와 온 선교사 피치(George A. Fitch) 등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그

11)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http://www.syngmanrhee.or.kr).

는 일본군의 난징 입성과 난징대학살이 발발하자 당시 학살된 중국인들의 사진을 미국 전역에 유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한국독립운동과 관계해서 1932년 윤봉길 의거 후 상하이에서 쫓기는 임정 관련 인사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기도 했다. 해방 후 내한하여 부산 지역에서 YMCA 활동에 종사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을 도왔다.

임정은 미국 정보당국과 함께 앞으로 있을지 모를 한반도 상륙작전을 준비했다. 그래서 충청에서 OSS와 함께 특수훈련을 전개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는 바람에 한반도 상륙작전은 실시되지 못했다.

해방공간에서의 미국인들의 활동

신탁통치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 이외에는 전후 한국에 대해 미국은 자세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미국의 희생을 줄이고 일본의 항복을 조기에 끌어낼 목적으로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이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공식적으로 연합국에 항복했다. 소련은 알타회담에 따라 8월 8일자로 일본에

신생선포를 하고 만주와 북한에 급히 상륙하여 북한 전역을 손에 넣으면서 남한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대가 오키나와에 있는 미 24군단으로 신속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미 정부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소련 측에 38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소련 측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에 오게 된 것은 1945년 9월 8일이 되어서였다. 미국이 남한에 왔을 때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체政體가 점차 구성되고 있을 때였다.

해방 후 임시정부는 미국 정부방침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1945년 10월에 이승만, 11월에 김구가 개인자격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하지^{John R. Hodge} 장군을 책임자로 하는 남한의 미 군정 측과 맥아더를 수반으로 하는 일본 미 군정 측은 임정의 명망, 특히 그 상징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¹²⁾ 게다가 박헌영을 제외한 남한의 주요지도자(이승만·김구·김구식·여운형) 등이 모두 기독교 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남한의 기독교인들이나 미 군정 측은 이들과 협력하

12)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135~137쪽.

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미 군정 측은 토지문제나 일제 인맥 정리 등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미 국무부는 좌우합작이나 미소협상 등을 통한 신탁통치안에 좀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므로 양자는 남한 내 정국의 변화에 따라 뼈격거림을 경험해야 했다. 결국 미 정부는 1947년 9월경 남북간의 갈등과 미 군정의 보수적인 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미소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탁통치안을 최종적으로 폐기하고 한국 독립안을 UN으로 넘기게 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동년 8월 15일자로 대한민국이 탄생했고 북한도 동년 9월 9일에 정부수립을 했다.

이러한 해방 후의 정치적 변화에 미국인들은 이런저런 형태로, 주도적 내지 소극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선 해방 후 다시 미 군정의 국무부 자문관으로 오게 된 랭던은 신탁통치안을 폐기하고 정무위원회를 구성, 이것을 모체로 남북의 단일정권을 만들자는 사실상의 단정안을 일찍부터 제기하는 매우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다.¹³⁾ 북한에서의 1946년 3월 이후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 등에 대해 미 군정 측은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13) 위의 책, 137~146쪽.

미 군정에 관여한 많은 미국인들은 이에 공감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해방 후에도 단일 집단으로 가장 한국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미 군정의 자문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언더우드(원한경), 피셔 James E. Fisher 등 연희전문학교 소속의 교수-선교사들은 반공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들은 일정한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반공을 우선에 두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문제를 이념적 눈이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로 보는 선교사 출신 내지 그 2세대도 있었다. 예를 들면 1928~1934년 동안 함흥에서 YMCA 농촌운동에 종사했던 번스 Arthur C. Bunce는 1946년 2월 하지 장군의 국무 참모로서 대사급으로 부임해왔는데 철저한 사회개혁, 특히 토지개혁과 산업발전 그리고 미국의 원조라는 삼박자에 의한 한국사회의 변화만이 공산주의의 발흥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미국에서의 원조 집결처인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 한국책임자로 원조를 '긴급구호'에서 '경제개발'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전에는 일정한 경제안정과 개발계획에 착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미 군정 시에는 하지, 그리고 정부수립 후에는 이승만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긴급

구호의 역할만 필요해지고 경제협조처의 기능은 무기력해지자 한국을 떠나가게 되었다.¹⁴⁾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맥쿤의 경우도 유사한데 그도 한국 문제를 이념문제보다는 친일청산과 사회경제적 개혁에 많은 무게를 두었다. 그는 남한 내 한국문제 담당관들이 한국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개탄하고 버클리대학교에서 한국 관련 미 외교관 양성 프로그램을 그의 아내 에블린 맥쿤 Evelyn B. McCune과 함께 만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미 군정과 이승만이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한편 선교사들은 1947년 후반이 되면 해방 이전 자신들이 활동하던 것에는 못미쳤지만 각 교파의 선교부를 다시 세우면서 의료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게 되었다.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해방 후 들어갈 수 없게 된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월남인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월남교회인 영락교회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새로운 학교들(영락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을 세우는데 열심이었다. 또한 라디오 방송국 CBS를 세우기도

14) 안중철, 『해방 전후 아더 번스(Arthur C. Bunce)의 활동과 미국의 대한정책』, 『미국사연구』 31, 한국미국사학회, 2010. 5, 139~167쪽 참조.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을 건립하는 데 재정투입을 하게 되었다.¹⁵⁾

북한 신앙리 일대의 선교사 타운은 “공산주의자들의 최고사령부”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소련군정 고위 인사들의 숙소, 정치학교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적 활용은 남북간에 서구인들이 남겨놓은 유산이 얼마나 한국사회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는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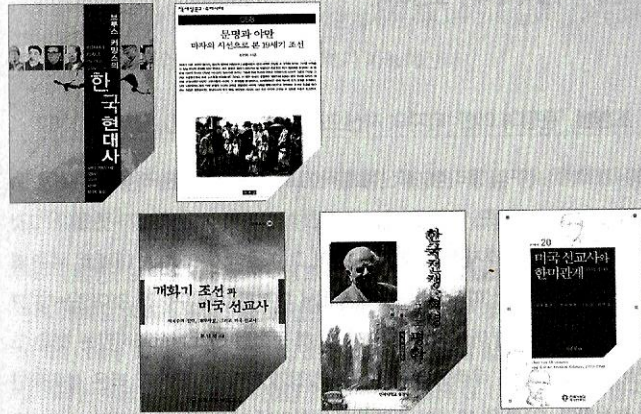
한편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미국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문제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3대째 일해 온 언더우드 Horace G. Underwood(원일한)은 미 해군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 시 선발부대로 투입되기도 했고 휴전회담의 수석 대표였다.¹⁶⁾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공과 민주주의를 동일시하며 선전작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피셔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활동은 해방 후 남한사회의 한 단면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한국인들이 냉전 구도 속에서 이들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미

15) 안중철, 앞의 책, 273~275쪽 참조.

16) 원일한,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 주장돈 옮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의 제6장 참조.

국에 유학하거나 방문했고 후일 한국의 엘리트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더 읽어 볼
책들



• 브루스 커밍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김동노 외 옮김, 창작과 비평사, 2001 •

한국전쟁 연구로 유명한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에 관심있는 미국인, 특히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집필되었는데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한국이 세계체제의 주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실상 중심부에 가까이 오게 되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규명한 책이다. 전통시대의 덕성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고, 냉혹한 국제현실 속에서 한국의 현 모습을 만들어온 한국인들

의 열정을 뛰어난 필치로 묘사하고 있는 대목들이 백미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김일성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식민지시기와 해방 전후 한국의 사회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관한 부분은 두 권 분량의 두꺼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자들에게 매우 요긴하다.

• 조현범, 『문명과 야만: 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책세상, 2002 •

19세기 이후 서구의 물리적, 정신적 침략에 저항, 순응, 혹은 적극적 수용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한국은 자신을 찬찬히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것은 식민지와 같은 '타자'를 갖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다. 대체로 서구 열강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할 모델로서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는데 그들의 물질적 부분만 아니라 사고의 틀, 특히 문명을 위계질서화시키는 것을 그대로 배우고 그것을 우리들의 내면에 자리잡게 했다는 점을 이 책은 설득력있게 분석한다. 이 책은 19세기 중엽부터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서양인 선교사들(주로 가톨릭)의 생각과 활동을 분석한다. 선교라는 명목으로 우월적 시선의 권력을 휘두른 서구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다른 국가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반성을 하게끔 한다.

• 류대영, 『개화기 조선과 미국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4 •

이 책은 국제관계사의 문화사적 전범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미국 선교사들의 한반도 진출과 미국 정부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초기 조선 정부와 미국이 맺었던 조약과 그 결과로 파생된 치외법권, 내지거주, 그리고 선교사업 등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자료접근의 한계로 막연하게

알려졌던 개항기의 선교사와 조선의 정치적 관계를 미국 측 자료와 조선 측 자료를 대조해서 분석함으로써 당대의 실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미국인들에 대해 가졌던 한국인들의 환상과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졌던 다양한 입장에 대한 파노라마적인 서술과 분석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초기관계사만 아니라 기독교사, 그리고 한국 근대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가 가능해진다.

• 원일한,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 주장돈 옮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저자 원일한(1917~2004)은 미국명 호레이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인데 저자도 지적하듯이 자신의 집안은 한국에서 많은 것을 이룩했지만 이름을 짓는 데는 약간의 우둔함이 있었던 것 같다. 저자의 할아버지는 한국에 선교사라는 직업으로 첫발을 디뎠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한국명 원두우)이고 아버지는 원한경(Horace H. Underwood)이다. 할아버지는 한국 개신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새문안교회, 기독교사회, YMCA 등의 창립과 함께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의 창립자이다. 아버지는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의 교장으로 식민지시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자이자 선교사였다. 원일한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 현실을 회상한다. 이 시기는 식민지 말 전시동원, 선교사 추방, 제2차대전, 해방 후 미 군정,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후의 혼란으로 점철된 시기이다. 그의 회상은 한국근현대사를 한국화된 외국인의 눈으로 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안종철, 『미국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교육철수, 전시협력, 그리고 미 군정』,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

저자는 이 책에서 그 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제 말기부터 2차대전, 그리고 미 군정에 이르는 시기에 걸쳐서 미국인들의 활동을 다루었다. 특히 선교사들은 일제 말기 신사참배를 두고 자신들 내에서 매우 복잡한 논의를 거쳤고 그것에 이은 선교사 철수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후에는 미 군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 내에서 한미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들은 미 군정에서 반공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전후에 새로이 탄생한 신생 대한민국의 사회성격을 규정하는 데 일조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아닌 매우 복합적인 존재로 변해갔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인적관계를 통한 한미관계의 문화적 관계망을 보여준다.

전통문학을 통해 본 일본의 모습

- '와카', '하이쿠', '무카시바나시'의 세계



임용택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비교문학 비교문화전공 학술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김소운 『조선시집』의 세계』(일본 중앙공론신사), 『일본문학의 흐름』 2(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 『하기와라 사쿠타로 시선』, 『둔황』(이노우에 야스시) 등이 있다. 현재 인하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일어일본학 전공 교수.